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7월 15일(수) 배포즉시

담당 : 기업지원본부 전종윤 과장
(051-990-7063)

제284차 부산경제포럼 개최

AI & Physical AI 시대를 위한 3가지 옵션

▶ 서울대 경영대학 박남규 교수 초청 강연에 지역 기업인 등 220여 명 참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5일(수)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AI & Physical AI 시대를 위한 3가지 옵션'이라는 주제로 제284차 부산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늘 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강동석, 신한춘, 이수태, 문창섭 부회장과 김영득, 권기재 감사가 참석하였고, 이 외에도 강철호 부산동구청장, 이청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상천 동명대학교 총장, 민필규 KBS부산총국장,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2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강연을 맡은 박남규 서울대학교 교수는 AI와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짚어냈다. 특히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스케일 투자, 기존 사업과 AI의 융합, 나아가 AI와 피지컬 AI를 결합한 새로운 창조적 경영 옵션들을 제시했다.

박남규 교수는 강연을 통해 "AI 시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가치창출의 패러다임 자체가 급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과감히 융합하여 사업의 프로세스 자체를 재창조하는 경영자의 혁신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성형 AI를 넘어 현실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피지컬 AI의 등장은 제조와 물류,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 함께 지역기업들도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AI 활용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오늘 강연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지역 기업인은 “AI를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며, “기존 사업에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강연이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